

# 광주 학교폭력 피해 학생 1895명

### 작년 비 392명 ↑ 언어폭력 34.1% 가장 많아

### 광주시교육청, 방안 보완·예방교육 등 추진

광주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95명으로 전체의 1.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3명(1.1%)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

3.7%, 중학교 0.7%, 고등학교 0.3%로 지난해보다 피해 응답률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응답을 통해 피해사제가 2929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언어폭력이 34.1%,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이 23.7%, 신체폭행 9.6%, 사이버괴롭힘 8.8%, 스토킹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품갈취가 7.3%, 강제적 심부름 4.6%, 강제추행 및 성추행 3.8%로 집계됐다.

가해자 중에는 같은 반 학생이 47.3%로 가장 높았고, 같은 학교 학생

이 30%였다.

피해 장소로는 교실 안이 31% 복도가 12%로 확인됐으며 피해 시간의 경우 쉬는시간이 35%, 하교시간 16.8%, 점심시간 13.9%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은 만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의거해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자료 제작과 교육활동을 강화한다.

또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 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해 학교현장의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게 보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의 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어울림)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시교육청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7693명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 학생의 85.9%인 11만8260명이 참여했다.

조인호 기자

## 광주서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백모씨(33)를 입건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9)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백씨는 900m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백씨 차에 묻은 핏자국으로 백씨의 백스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백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전후 취소 수치인 0.147%였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날 오후 9시54분에는 광주 서구 동전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를 길가에 대려다가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황모씨(53)가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78%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이들의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옆 테이블 손님 폭행 도주 20대 19개월만 검거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때린 뒤 달아난 20대가 1년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B씨(39)와 언쟁을 벌이다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유리잔을 얼굴에 던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17년 5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충남 천안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지명수배했고 26일 광주 모처에서 붙잡았다.

## 타이어 가게서 외제차 휠 훔친 부부 절도단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타이어 가게에서 자동차 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7월7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타이어 매장에서 외제차 휠 2개 등을 리어카에 싣고 달아나는 등 2회에 걸쳐 자동차 휠 32개(3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물업자 B씨(49·여)는 A씨 부부에게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휠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 한 고등학교 야구부서 후배 폭행 의혹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3학년 학생이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신입생 A군은 야구부 선배 B군이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왔으며 지난 2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군의 폭행과 괴롭힘에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B군이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물론 다른 야구부원이 있을 때에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B군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이 고통을 받았다면 사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 결과를 A·B군에게 우편으로 보냈다"며 "징계 내용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B군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뉴스1

## 남해안 적조주의보 양식장

### 밀집해역까지 확대

적조주의보가 지난 2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남해안의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전남 연안 해역에서 출현한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전남 여수에서 완도에 이르는 해역으로 확대돼 최고 890개체/㎖로 출현하고 있다.

코클로디니움은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플랑크톤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하기도 한다.

올해 첫 적조출현주의보(적조생물 10개체/㎖ 이상)는 지난 20일 내려졌으며, 적조주의보(적조생물 100개체/㎖ 이상)는 23일 전남 여수시 일부 해역에 발령됐다.

이후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남해안의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수과원은 전했다.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육밀도 조절 △소량의 먹이공급 및 질식 △산소공급장치 가동 △관매 가능한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과원 관계자는 "누리집, 문자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적조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적조발생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며 "적조 발생해역 및 그 인근 해역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적조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1



**국정농단 방청권 추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등 출입구에서 재판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시민단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규탄 대회 오늘 진행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한빛원전 1호 재가동 결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28일 연다.

27일 '한빛 해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와 '한빛 해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에 따르면 28일 한빛원전과 영광 등에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규탄대회는 오전10시30분 해발전소 앞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 1호기 재가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 영광을 일대 순례를 진행하며,

영광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는 출력 급증 사건 특별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했다"며 "하지만 재발방지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도 없었고,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의 경우 폐쇄회로(CO)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우르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육이 민간합동대책위원회

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위의 전문위 검토절차도 없이 졸속 승인·발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지역주민과 탈핵시민사회단체 등은 한빛 해발전소 앞에서 한빛 해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며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취소와 사건과 관련한 한수원과 원안위 원점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